

학생인권이 꽃피는 세상  
모두의 인권이 대접받는 세상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사자성어  
5초 퍼즐

변기에 10원을 떨어뜨렸다면?

애

태

유



사

어

야

변기에 100원을 떨어뜨렸다면?

관

사

토



야

민

화

효

사

변기에 500원을 떨어뜨렸다면?

자

자

야



이

이

기

와

포



변기에 1000원을 떨어뜨렸다면?



선수 다 되셨죠? 계속 갑니다~



변기에 5000원을 떨어뜨렸다면?

정



의

영

파

권

권



변기에 10,000원을 떨어뜨렸다면?

사

수



금

의

이

수

판





변기에 10만원 수표를 떨어뜨렸다면?

민원

사

계

정



의

규

편

수표

누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게 푼돈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이라면?



급 혼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우

아파트가

급

주

박람회

혼

정

전국여행

복

복수여행

급 혼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존엄하게 뚝 쌀 권리조차 없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밥'과 '화장실'**



학생의 권리라고 하지 않고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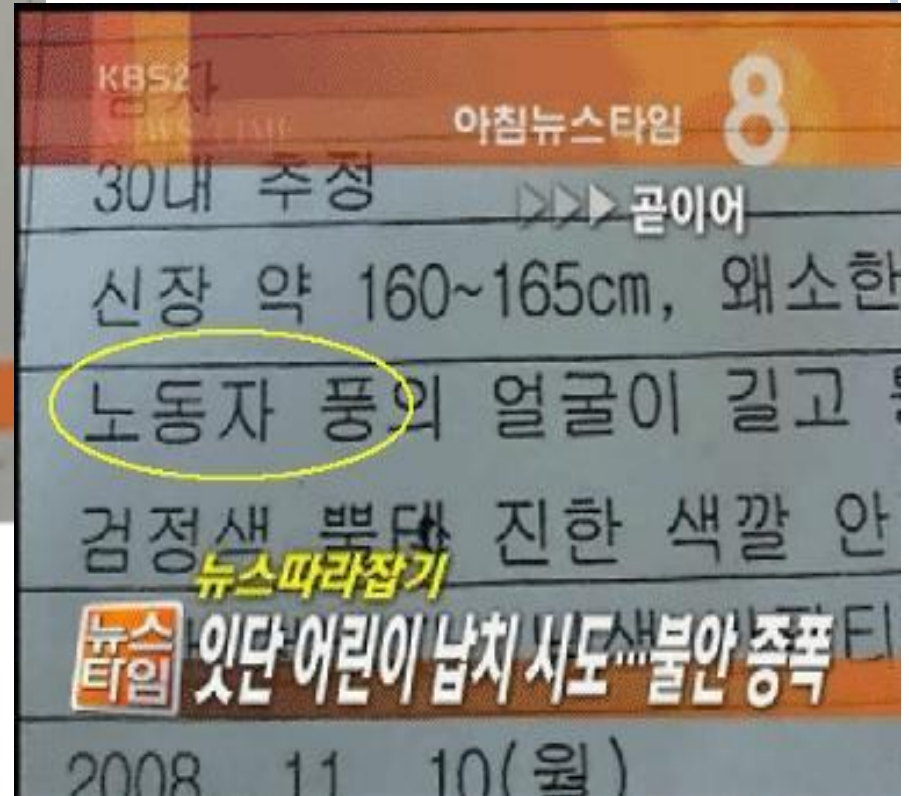
87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두발자유' 요구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학교에서 한날 머리카락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이 사회는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나?



급 혼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우

우울하다

급

주

주검하다

혼

정

정경하다

복

복수하다

급 혼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 학생을 지배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



# '무서운 10대들' 청소년 조직 절도 잇따라

[ 2008-04-24 07:44:56 ]

# 성폭력 '불안한 10대 · 무서운 10대' 무서운 10대... '무면허에 대포차까지'

[ 2008-05-06 14:24:51 ]

# 무서운 10대 여학생들, 금품갈취에 절도

[ 2008-08-06 11:07:41 ]



범죄자의 얼굴을 한 또 다른 주체는?



청소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신 나간 좌파들이 무분별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장하여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난하였다. 공격의 첫 대상은 청소년이었지만 애초부터 대처주의의 목표는 교원노조와 진보 전체였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진보의 가치 자체였다. 그 결과 영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압적인 '법과 질서'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 엄기호, <공격받는 청소년>

#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



두 표지판의 차이는?

☞ 학생은 어떤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가



시민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하여 이명박정부 교육을 심판합니다.



진짜 후보가 여기 왔다!!

7.30 서울교육감 선거

# 깨발랄 리얼 후보

뭣 뵈으니까 나와봤대!

이딴 교육 받으면  
이명박 된다!

## ★ 깨발랄한 핵심약속 ★

- 입시경쟁NO 다양&평등 교육으로~
- 0교시, 강제야자, 보충수업, 우열반 안둠!
-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인권보장!
- 영어교육정상화. 영어는 하나의 외국어일 뿐!
-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청소년 참가 Go~
- 교사소환제/인권교육 등, 별보단 소통과 변화!
- 탈학교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현장경험 풍부  
시험만 골백번!

서울시 교육감 후보

# 기호 0번 청/소/년

<http://csn08.tistory.com>

\* 실제로 등록된 후보가 아님. 선거법 위반이라고 잡아가지 마세요.

6기호  
**주경복**

시민이 선택한 민주교육감

- 1950년 강원도 원주 출생
- 원주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 졸업
- 프랑스 파리5대학 언어과학 박사 과정 (1983년~1986년), 언어과학 박사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 교수
- 둔촌중학교 운영위원

- 참여연대 운영위원
- 교육개혁시민운동대 상임대표
- 민주화물위헌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 재경 원주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학교법인 지산학원 이사(현)
- 시민방송(RTV) 운영위원(현)





## 학생지도 가이드라인 '교과부 vs 서울·경기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적 체벌 금지</li> <li>간접적 체벌(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 허용. 범위와 수준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함</li> </ul>	체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간접 체벌 모두 금지</li> <li>모든 학교의 체벌관련 학칙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권조례로 체벌 금지</li> <li>모든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가 학칙으로 정함</li> </ul>	두발 복장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 학기부터 학칙 개정 통해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권조례로 두발길이 규제 금지</li> <li>피마·염색 자율 기준 마련</li> <li>교외 명찰 착용 금지 및 고정식 명찰 지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의 자율성 위해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li> </ul>	학칙 인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감의 정책실현 제한, 교육자치 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부가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의도</li> </ul>



간접 체벌은 폭력이 아니다?



콜 센터의 '서있기 체벌'과 얼마나 다른가?



무상급식엔 찬성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엔 거부감을 갖는다?



# 東亞日報

서울 22~29℃ 경기 21~30℃ ▶ 5월 10일  
1920년 4월 1일 창간 제7963호 45면

donga.com

## “성취도-교원평가 반대” 중고생 단체가 홍보전

‘아수나로’ 9일 거리집회 예정 - “소극적인 전교조 독재”

3월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학생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반대 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고교생이 주축이 된 청소년 단체가 이 운동의 전방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 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일제고사 거부와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거리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교육학 부도청과 한국교육연도청으로부터 평가 함께 학생성취도평가 전담인 12일까지 서울지역 학교와 지방청을 돌며 ‘일제고사 반대’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학생성취도평가 도입 19일 오후에는 문화운동장에서 ‘일제고사 교원평가 경원교육 복지 할 주제’ 순회제를 연다. 아수나로는 최근 서울지부 회의

에서 “전교조가 요구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학(한국교육학부)도 캐노엔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됐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9일 집회와 관련해 전교조에 분쇄행 보내 압박하자는 의견을 내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에는 아수나로 회원들이 (일제고사 거부) 학생성취도에 참여하는 것처럼 앞으로 당면에는 일제고사 반대 집회를 해야 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정보 상황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전교조가 ‘일단 교육감을 지켜보자’는 태도인데 반해 청소년 단체는 전교조를 압박해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월 결성된 아수나로는

아수나로 최근 주요 활동 내용

- 2009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기해단 창립
- 무당 자유, 재벌 폐지 등 학생인권 1대 100인성 교육과정개발부 제출
- 14월 일제고사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서 인권위 제출
- 2010년 일제고사 반대 학생인권조례 추진, 3월 일제고사 반대 학생인권 운동 참가
- 4월 서울시교육청 민주선진화추진위원회 참가
- 교육감 재에후보 호칭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학생인권 운동 전개방안 제시
- 교로생에 중심이 된 학생인권운동 단 체다. 서울시 지부 seoul@donga.com, 황해나 지부 yellow@donga.com
- 32면 ‘아수나로’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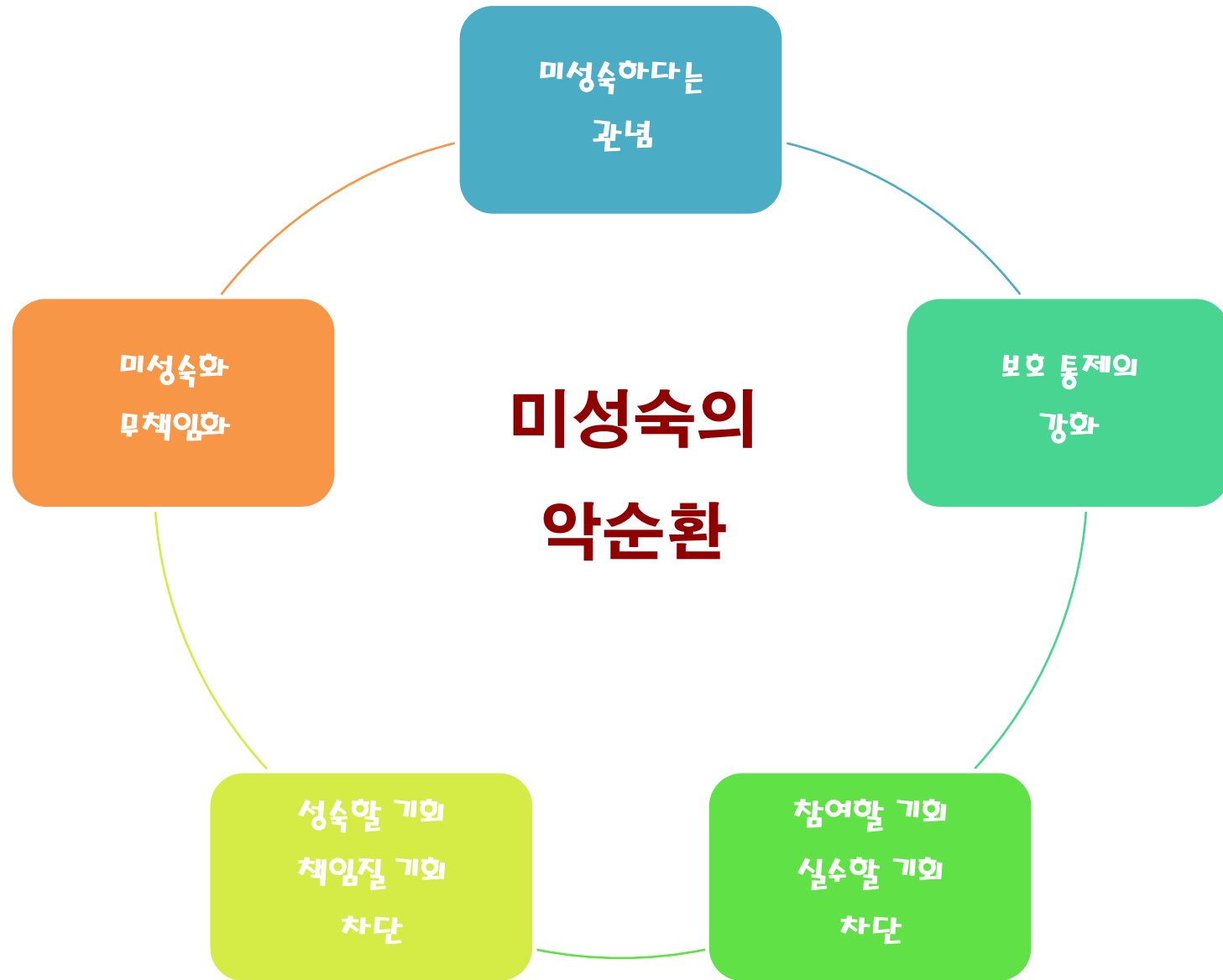
버스에 빛간 가드레일 - 가슴 빛간 유족들 교도교수 수석사교 교 생이 파손된 도로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청학부 구가간 가드레일을 통해 시

## 청소년 ‘인종주의’에 대한 반격

“우리의 운동은 당신들의 정략보다 성숙하다.”



# 어린이, 청소년은 미성숙한가, 미성숙해지는가



**어떤 교육을  
상상할 것인가?**





# 마침내 그날이 왔다! 제기랄..



http://lares.elda.in

중고등학생 최후의 날

# 학교개학





## ➤ 가려진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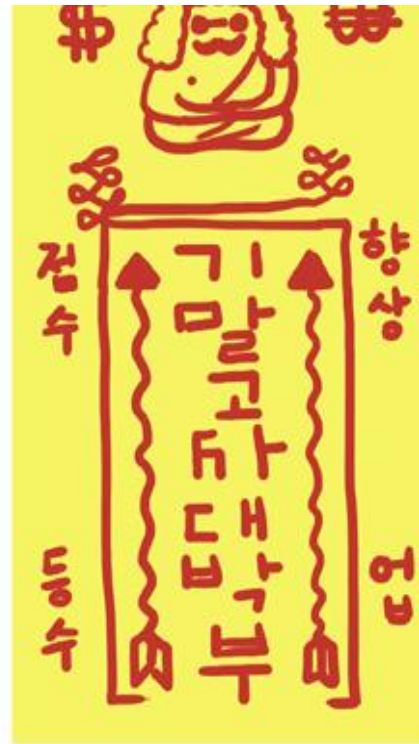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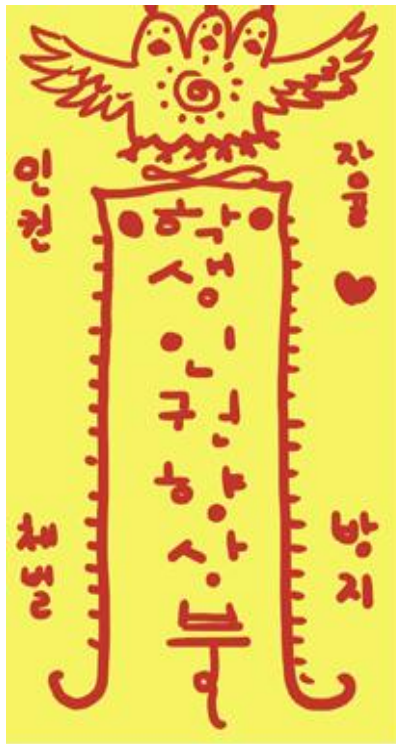
- 2008년 학생 137명 자살
- 2004년~2008년 학생 623명 자살, 5년 새 35.6% 증가
- 성적비관 자살은 4.25배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09년)

- 청소년 20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시도
  - 질병관리본부 발표(07년)

-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
  - 통계청(09년)

- 중고생 5명 중 1명 우울, 자살 위험군
  - 중고생 5653명 설문조사결과(10년)





한정만 효험이 있어요.  
 둘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정만  
 선택해 프린트해서 사용하세요.



어디,  
 사람들이 어느걸 더  
 원하는지 한번 봅시다?



☞ 정말 양자택일의 문제일까?



**한국: 학생 흥미도 17위**



핀란.

**한국: 학생 자아개념 19위**

오후 2-3시 수업이 끝난 이후

☞ 국제학력조사 PISA 전 영역에서 고득점을 올린 핀란드. <경쟁이 아닌 협력!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 낙오자 없는 교육! > 지향

☞ “한국의 학생들은 성적은 높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이우고의 화장실 테러 사건, 교사들의 선택은?**



➤ 비극의 이면, 폭력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나?



## 맞을 짓 vs. 맞아도 되는 사람



- 학교 폭력 vs. 학교의 폭력
- 폭력의 논리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들



체벌을 멈추는  
것은  
폭력적 힘이 지배하는 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작

## 학교 안 힘의 피라미드





## ➤ 여교사 수난시대?



▲ 고등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처사진

- 선생님 꼬시기? 여교사 수난시대? 교권 문제로만 접근할 때 여교사는 피해자이자 무능교사로 전락
- 누가 표적으로 선택되었나? 상대적 약자인 신규, 비정규, 젊은 여교사가 주로 표적으로 선택되는 이유

☞ 폭력의 문화를 인권의 문화로 재구성해야 한다

➤ 점수로도 때릴 수 있다

# 00고등학교 생활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00고등학교 '학생선도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기본법 12조(학습자) 및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학생징계)와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징계가 요구될 시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벌점 기준 내용

- 1) 염색, 파마머리(1점)
- 2) 교복 미착용 및 상태 불량(1점)
- 3) 명찰 미착용(1점)
- 4) 규정과 다른 외투 착용(1점)
- 5) 스킨, 로션, 썬크림을 제외한 색조화장(1점)
- 6) 긴 손톱 및 눈썹에 대한 지나친 가공(1점)
- 7) 귓볼보다 큰 귀걸이(링귀걸이) 및 각종 피어싱, 팔찌, 발찌, 선글라스 등 학교에서 금지하는 장신구(1점)
- 8) 수업분위기 저해 행위(2점)
- 9)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2점)
- 10) 교내 질서문란 행위(2점)
- 11) 쓰레기 무단 투기(2점)
- 12) 수업 중 핸드폰, MP3, PMP, PSP 등 불필요한 전자기기 조작 사용하는 행위(3점)
- 13) 급우 간 싸움을 한 행위(5점)
- 14) 학생 간 모욕, 희롱 혹은 폭력행사(5점)
- 15) 본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5점)

## 벌점 기준 내용

- 16) 이성간의 풍기문란 행위(5점)
- 17)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행위(5점)
- 18) 불량 서적(음란서적)을 탐독하거나 소지한 행위(5점)
- 19) 껌이나 가래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5점)
- 20) 도박을 한 행위(5점)
- 21) 교사 지도 불응(5점)
- 22) 무단결석(1일 2점), 무단지각(2교시까지 등교 0.5점, 2교시 후 등교 1점), 무단조퇴(1회 2점), 무단결과(1회 2점)
- 23) 벌점 부여 시 타인의 이름이나 반 번호 도용(10점)
- 2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10점)
- 25) 흡연 또는 담배 라이터 소지(10점)
- 26) 음주 또는 술 소지(10점)
- 27)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 28) 흥기 소지(10점)
- 29)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10점)
- 30) 금품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행동(10점)
- 31) 언행이 불량하여 진정 또는 통보된 행위(10점)

## 벌점 기준 내용

- 32) 공문서, 인장 및 제 증명을 위·변조한 행위(10점)
- 33) 불법 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 가입한 행위(10점)
- 34) 문신을 하여 혐오감을 준 행위(10점)
- 35) 고사 부정행위(30점)
- 36)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40점)
- 37) 시험 문제지 절취 또는 누설(40점)
- 38)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 복용(40점)
- 39)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행위(50점)
- 40) 교사를 위협하거나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50점)

※ 벌점 기준 외의 사안은 선도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벌점 10점 이상 부여 시 필히 생활지도부 소선도위원회와 협의 후 처리한다.

※ 부당한 벌점 부여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생활지도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조용했다.



투쟁은 사소한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지배자들에게는 법칙 아닌 것도 국가 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잡아갈 구실을 만들 수 있었다.

심지어 한 번은 밤간 암살 때문에 하루 종일 위원회에서 보낸 적도 있었다.



정권은 잘 압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바지가 충분히 긴 건가?

배일이 잘 뉘웠나?

외장한 게 너무 진한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떡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시상의 자유는 어디 있지?

나의 언론의 자유는?

내 삶은 실만한 걸까?

정치범들은 어떻게 된 걸까?



당연한 거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분석과 사고의 개념을 잃게 되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그리고 언제나 두려움은 모든 독재 체제에서 억압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미리를 보이게 하거나 외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항의 행동이 된다.



➤ 주어진 규칙과 정답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들

## ➤ 학생규정 vs. 학교규정

# 뉴욕교육청 학교규정 가이드라인

## 학생의 권리

-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 괴롭힘, 편견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권리/ 개인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 **표현 및 개인의 자유** : 학생회 또는 각종 모임을 구성, 참여할 권리/ 학교생활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위원회를 대표할 권리(필요시 투표권도 행사)/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배지, 완장 등을 착용할 권리/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위험하거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몸수색 등 부당한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등
-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 무엇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는지 알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성인 또는 대리인과 동반 출석할 권리

# 학생의 책임

- 수업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 학교기기를 조심히 다룬다
- 건물 출입 규정을 따른다
-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분쟁을 해결할 때 극단적 방법을 피한다
-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게 행동한다
-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학생회를 긍정적 토론의 장으로 만든다
-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온다
- 학교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권리를 가진 자만이 책임도 질 수 있다 



# 독일 하이델베르크 분젠 김나지움 학교규범

2003년부터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학교규정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났다. 중점적인 논의 끝에 학교 규정이 만들어졌다.

**전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교생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면 공동 생활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존중해야만 한다.

## 일반적인 원칙

-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한다
-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 갈등이 생기면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 비판이란 언제나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 개별 세부 원칙

- 학생이 지켜야 할 원칙 – 폭력 사용하지 않기. 객관적으로 해결점 찾기.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학급 공동체를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통합하기 등
- 학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 자녀의 인격적, 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기. 학교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등
-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 – 전문성 있는 수업하기.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 주기.
- 관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 – 구성원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정



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약속이다

#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공동체 생활규범

**원칙**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공동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 참여, 소통, 희망, 신뢰의 배움 공동체 가치를 구현한다.

## 각 구성원의 생활원칙

- 교사 : 체벌을 절대 하지 않는다. 욕설, 비속어, 증오발언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등
- 학부모 : 내 아이 중심에서 벗어난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등
- 학생 : 자신을 가꾸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함께 성장한다(기다리기보다는 협조를 청한다/ 도와주기보다는 함께 해결한다)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방향

- 학생생활인권규정 마련의 민주성, 합리성 추구
- 유의사항
  - 학생인권 존중 및 교사-학생 간 신뢰 구축 : 순간 감정 조절하기/ 교무실 호출 안 하기(벤치, 함께 걷기 등 활용)/ 무릎 꿇리기 안 하기/ 증오발언 안 하기/ 다수 앞에서 모욕주지 않기
  - 지도 전에 먼저 상담하기

👉 학교와 교사가 신뢰를 보여줄 때 생활교육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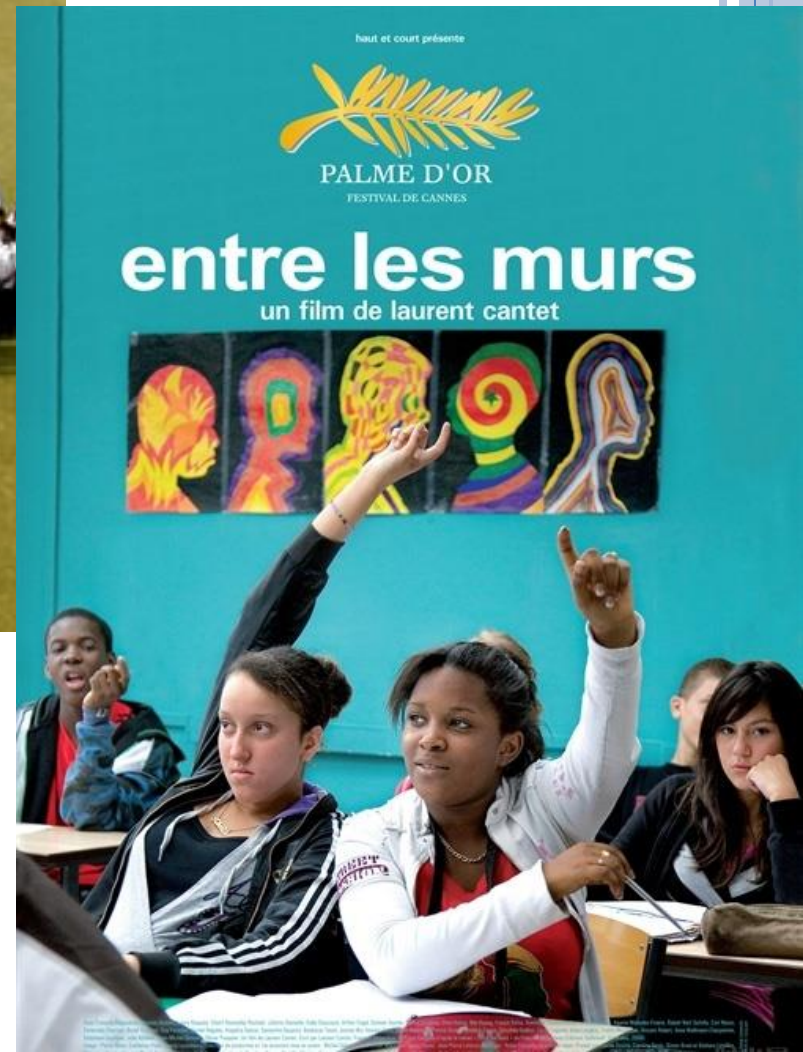
👉 수업혁신에 초점을 맞춘 장곡중, 차이는 '생활지도'에서 비롯

# 학습된 무기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복종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

➤ **고급스럽지 않지만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



## ▶ 학생인권조례가 그리는 학교

- ▶ 자발성에 기초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 ▶ 체벌, 성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등 폭력 없는 학교생활
- ▶ 차이가 존중되고 차별 없는 학교생활
- ▶ 학생의 의견이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생활
- ▶ 학생의 개성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학교생활
- ▶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등 돌봄이 있는 학교생활
- ▶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생활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 노동과 분리된 교육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위생 검사를 하면 선생님들이 꼭 손톱부터 본다니까. 그래서 손톱에 때가 끼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손톱 밑에는 진짜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다. **문제는요, 노동과 교육이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예요.**

- 김진숙, <자본천국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남기>

## 삶/교육의 경험이 노동인권감수성을 만든다



독일 중등 사회교과는 340쪽의 분량 중 93쪽을 노동교육에 할애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모의노사교섭'이 일상적 수업으로 자리잡혀있다.



학교의 장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인권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31조 학교 내 인권교육

# 8시간

Kellogg's Six Hour Day

# VS

# 6시간

변혁의 순간 8시간 노동  
필요한 이유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  
1930~1985



## “새벽 3시의 커피타임 이야기”

노출 시간은 반드시 기록하라 -  
특수 노동현 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 가운데 연구에 연구가 거듭될수록  
10배가 더 길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직장현 장에서 근무하는 30년 경력의  
여성들 10명까지 더 길게 근무할 수밖에 없다  
경쟁사들은 어느 누구도 새벽 3시의 커피타임을 가질 수 없다

청소년기의 '영원한 연장'- 누가, 언제까지가 청소년인가?





**일년 1040시간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법(하루 9시-5시까지 130일간)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

**참고: 독일은 1시반 하교**



**한국은 3150시간? (8시-밤10시까지 225일간)**



## ▶ 학생인권과 교육노동자 인권



학생이 미성숙하다 가정될 때 교사의 권리도 제한된다

## 교사임에도 학생인권을 말한다?



“실내화 규정을 없애고 나니 아이들 눈을 보게 되더군요.”

“애들이 제 앞가림은 하게 해줘야 내가 좀 편해지겠다.”

“나 혼자 힘으로 애들 인권 못 지켜준다.”

“혼자 교실 청소하는 거 싫다.”

“짜장면 신화는 이제 안 통하더군요.”



누가 가장 위험하냐고?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익의  
시대를 열자



## ➤ 무얼 하면 될까?

- 이 운동을 널리 알리는 게 장땡
- 서명지 갖고 다니며 어디서든 받자  
서명지 다운받을 곳 [www.sturightnow.net](http://www.sturightnow.net)
-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알려준다
- 학생인권 관련 행사가 열릴 때 참여해 본다
- 거리 서명전에 함께 나서 수고와 기쁨을 함께 나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인권교육센터 '들'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